

율촌,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개설

“서방 제재, 루블화 폭락...한국 기업엔 기회”

日 포함 서방기업 투자 축소 · 철수

루블화가 폭락하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로펌들에겐 러시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기회가 커지면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3월 24일 모스크바 현지에서 개소식을 갖고 한국 메이저 로펌으로는 최초로 모스크바 사무소를 열었다. 또 한 달 뒤엔 법무법인 지평이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가 현지에 상주하며 자문에 나서게 된다.

러시아 자산가치 30~40% 하락

과거에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서 변호사를 파견했다가 철수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국내 메이저 로펌들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잇따라 변호사를 파견, 안팎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율촌의 초대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로 부임한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는 “루블화 폭락으로 러시아의 자산가치가 30~40% 하락,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데다 일본을 포함한 서방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의욕적으로 전망했다.

지평의 이승민 변호사도 “식료품, 의약산업과 함께 제조업, 자원개발, 인프라 쪽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등 투자관련 분쟁, 루블화 폭락에 따른 손배소, 계약 분쟁 등도 상당하다”며 “지금이 로펌으로서 모스크바 사무소를 열어 밀착자문에 나설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에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하는 두 로펌이지만, 율촌과 지평의 전략은 약간 다르다. 지평은 러시아의 10대 로펌 중 한 곳인 YUST와 제휴해 한-러 공동 전선을 편다는 전략인 반면 율촌은 직접 러시아 변호사를 채용해 독자적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평-YUST와 제휴

유리스트 자격과 함께 러시아 법정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아드보카트 자격까지 갖춘 이화준 변호사는 특히 “최고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500억원 규모의 KAI 사건 등 이미 20여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며 매출채권 징수와 관련된 법률자문이나 송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

율촌 YULCHON

OPENING CEREMONY
YULCHON MOSCOW

2015.3.24



법무법인 율촌이 메이저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진출했다. 3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율촌의 우창록 대표, 이화준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